

**도림동교육센터에서
서형숙 작가님. "아이
들을 기다려 주고 친
구처럼 함께 걷어가는
'달콤한 육아'와 '편안
한 교육'은 어렵지 않
다".**

아이들을 기다려 주고 친구처
럼 함께 걷어가는 '달콤한 육
아'와 '편안한 교육'은 아이의
성장을 보다 성숙하게 되도록
돕고 나아가 행복한 가족을 이

루는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임을
그러나 결단이 필요한 과정임을
작가님은 강조하였다.

2025-3-12.

서형숙 작가님은 '거꾸로 사는 엄마'
'엄마 학교' '엄마라는 행복한 직업'
등의 저서로 이미 달콤한 육아, 편안
한 교육, 행복한 삶에 대한 지혜를 널리
전파하신 분으로 유명하다.

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청중들은
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이
런 삶의 지혜에 대한 성찰과 공감 그
리고 반성 등을 하면서 점점 몰입이
되어갔고 한시간 40분이라는 비교적
긴 강의와 질의 응답 시간이 너무 짧
게 느껴질 정도였다.

현대 한국 사회의 육아 현실은 무한
대의 경쟁속에 아이들을 기계적인 학

습과 스펙의 도구로 내모는 불안과
강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, 그러나
아이들을 기다려 주고 친구처럼 함께
걸어가는 '달콤한 육아'와 '편안한 교
육'은 아이의 성장을 보다 성숙하게
되도록 돕고 나아가 행복한 가족을
이루는 결코 어렵지 않은 일임을 그
러나 결단이 필요한 과정임을 작가님
은 강조하였다.

가족이나 이웃은 물론 주변 환경에
이르기까지 섬세한 관심과 사랑을 가
지고 대하는 작가님의 이러한 남다른
'공감' 능력은 참 부럽고 특별한 달란
트임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
기도 하였다.

.....

geoleoganeun-dalkomhan-yugawa-
pyeonanhan-gyoyugeun-eoryeobji-
anhda/ (2025-3-25.)